

교환학생 보고서

소속전공	응용화학전공	학 번	201**906	성 명	이랑
주 소		휴대전화		메일주소	
파견국가	프랑스	파견대학	레오나르도 다빈치	파견학기	16년도 1학기
소요경비	항공권 : 약 120만원 생활비 : 약 600만원(월세, 식비, 교통비, 통신비 포함) 보험비 : 약 30만원 개인 여행비 : 약 300만원				
주거	프랑스로 떠나기 한 달 전부터 프랑스닷컴이라는 프랑스 한인 커뮤니티에서 보금자리를 찾아 한국에서 계약. 한 달 정도 거주 후 프랑스인의 집을 찾아 이사하여 학기가 끝날 때 까지 거주.				
룸메이트	처음 계약했던 집에서는 2인 1실이라 한국인 여대생과 함께 살았고, 집주인과 다른 방 거주자도 한국인들이었음. 두 번째 집에서는 홈 셰어 형태로, 프랑스인 집주인과 한국인 아저씨 한 분까지 해서 방은 혼자 쓰는 형태로 거주.				
기숙사 내 한국인	레오나르도 다빈치 대학에서는 기숙사를 제공하지 않았음. 직접 구한 집의 경우는 위의 항목에 기입함.				
파견대학 정보	파리내의 학교가 아니라 3존에 위치한 라데팡스 지역의 사립학교이며, 한국으로 치자면 경영학과, 컴퓨터공학과, 미술학과가 있음. 수강신청을 한국에서 직접 듣고 싶은 과목을 신청서에 써서 메일로 제출함. 차후에 삭제는 되지만 추가는 불가능. 교환학생의 경우는 프랑스어로 이루어진 수업이나 영어로 이루어진 수업을 선택해서 반이 나누어짐. 학교 내에는 학생식당과 체육관 등 학생 편의시설이 잘 이루어져 있음.				
파견대학 국제 교류부서	각 나라에서 파견학생이 많이 오기 때문에 국제 교류부서는 이미 존재했고, 담당자도 각 나라마다 여러 명이 있는 것 같았음. 우리 학교 담당자는 Virginie Fourquet이라는 분으로 궁금증이 있을 때는 학교의 국제교류센터로 직접 찾아가거나 메일로 문의할 수 있었음.				
주말 및 여가활동	수업이 없는 날이나 주말에는 교환학생들끼리 모여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는 경우도 있었고,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함. Introduction to European culture 수업의 교수님은 공강 때 학생들을 오르세 미술관을 데려가 작품 설명을 해주셨고, 프랑스 레스토랑에도 데려가 프랑스 음식을 접하게 해주심. 학기 중에는 일주일정도 두 세 번의 방학도 있는데 그때는 개인적으로 파리 관광지나 다른 국가 여행을 가기도 했음.				
멘토 또는 교류도우미	교류 도우미가 초기에 교환학생 환영회를 바에서 주최했고, 그 후에도 베르사유 궁전이나 파리 관광지 투어를 해주었음. 프랑스어 멘토가 있기는 했으나 기말치기 일주일 전에 자신들의 존재를 알려 도움이 되지는 못했음.				
전공	전공과 관련된 과는 파견대학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영학과 수업을 신청.				
수업 스케줄	교환학생은 필수로 프랑스어 수업을 들어야 했음.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서 기초반 수업을 들었는데 흥미가 생겨 좀 더 배워볼 계획. 지금은 간단한 자기소개와 간단한 문장을 말할 수 있는 정도가 됨. 다른 수업에서는 유럽의 문화와 정치에 관한 역사를 배웠고, 또 다른 과목은 유럽의 무역 관련 법률과 유통 방식, 거래 방식 등을 공부. Visits				

	of French companies 라는 과목에서는 유명한 프랑스 회사들에 대한 내용을 배움. 다논, 루이비통, 로레알, 에어프랑스 등 그 회사의 특징에 대해 배운 후 다른 회사 하나를 채택하여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발표를 하기도 함. 또 International Week 때는 수업 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학생들이 그 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을 만들어 홍보하는 행사를 하여 직접 참여. 수업 시간표는 학교 홈페이지에서 개인별 시간표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매번 바뀌기 때문에 시간과 강의실을 항상 확인.
학생할인 관련	유럽연합에 속한 국가들은 대부분 그 나라 거주자인 경우나 26세미만인 경우 할인이 되는 박물관이나 프렌차이즈 햄버거 가게가 많음. 그 중에 특히 프랑스는 오르세, 루브르, 노트르담 성당, 개선문 등 대부분이 학생 무료이고, 국제 학생증이 있는 경우 항공권이나 에어비앤비 예약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동양인의 경우는 학생증으로만 확인이 힘들어서 여권의 체류증이 필요함. 아트 학생증 소지자는 모든 미술관과 박물관이 무료임.
ISIC카드 활용	떠나기 전 학교에서 무료행사로 발급해주는 행사로 발급받아서 갔음. 하지만 한국에서 만든 학생증은 위조의 위험이 많아서 사용이 힘들었고, 파견대학에서 동일한 학생증을 만들어 주었는데 학교 출입 시에도 사용할 수 있었고, 박물관에 갈 때마다 무료로 입장. 또 외국인 친구들과 집을 빌려 파티를 할 때도 에어비앤비로 예약했기 때문에 할인을 받을 수 있었음. 이탈리아 콜로세움 통합권을 구입할 때도 할인을 받았으며, 개선문 전망대, 노트르담 종탑, 오르세, 오랑주리, 루브르, 오르세 등 많은 곳이 무료입장임. 프랑스의 Quick이라는 프렌차이즈 햄버거집은 학생증 제시를 하면 버거 하나를 무료로 추가할 수 있음.
영어공부	수업을 모두 영어로 했고, 학생들과의 소통도 영어로 해야 했기 때문에 평소에 보던 인터넷 강의를 계속해서 보았으며, 최대한 친구들과 회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 짧은 기간 동안 많이 노력하진 않았지만 실제로 회화를 하는데 자신감이 조금 생겼으며, 발표 연습이나 시험을 모두 논술 형태로 써야 했기 때문에 쓰는 연습도 많이 함.
여행	경비가 많은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마음껏 하지는 못했지만 가지고 있는 예산 내로 하려고 노력. 수업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틈틈이 파리내의 관광지과 베르사유, 몽생미셸, 옹플뢰흐를 다녀옴. 다른 국가는 이탈리아에서 로마, 바티칸, 나폴리, 폼페이, 피렌체, 베네치아, 밀라노를 다녀왔고, 영국의 런던과 체코의 프라하, 스페인에서는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알리칸테, 론다, 세비야, 그라나다, 말라가, 카디즈, 마드리드, 영국령인 지브롤터를 갔었고, 포르투갈에서는 포르토와 리스본을 여행.
교통	프랑스에는 다양한 교통권이 많이 존재했는데 한국과 달리 1회권을 10장사거나 주 단위, 한 달 단위로 충전하면 할인이 됨. 본인의 경우는 나비고를 구입해서 한 달 단위로 70유로를 충전하여 사용. 이 금액은 15년 9월부터 1~5존 모두 통합한 가격으로 운이 좋았음. 나비고로는 몽마르뜨 언덕의 푸니쿨라를 공짜로 탈 수 있음. 또 나비고 통합권으로는 5존까지 기차, 지하철, RER, 트램, 버스가 모두 이용 가능. 다른 국가로 이동시에는 버스로 이동할 수도 있고, 저가 항공을 주로 이용.
날씨	한국보다 덜 춥긴 하지만 겨울이 오래 가서 4월까지도 추움. 맑은 날과 흐린 날이 반반이라 화창한 날씨에는 기분이 좋으며, 무조건 밖으로 나감. 비도 하루에 몇 번씩 나누어 올 때가 많아 항상 우산을 가지고 다니거나 현지인들은 우산을 쓰지 않고 다님. 4월에는 우박이 오기도 함.
해외인턴	파견 대학이 회사가 많은 지역에 있어서 인턴을 할 수 있고, 4학년은 무조건 인턴으로 나가서 직무 능력을 쌓음. 하지만 프랑스어가 필수이기 때문에 인턴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음.
추신	해외여행 경험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친구를 사귀어 적이 없었기 때문에 대학 시절 할 수 있는 경험 중 평생 해보지 못할 정말 좋은 경험이었음. 혼자서 사는 경험도 잘 없었는데 해외에서 혼자 살아보니 자립심이 생겼으며, 모국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

	<p>라의 언어를 유창하게 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 확고한 계획이 있는 외국인 친구들을 보며 본인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됨. 물론 많은 비용이 들었지만 너무나도 소중한 경험이었고, 아직도 꿈만 같음. 파견 학기 중에 영어 실력 때문에 시험에 낙제할까봐 두려움이 많았지만 결국 모두 해내었고, 비록 좋은 성적은 아니지만 낙제 과목이 단 하나도 없었음. 모두 해내고 한국에 돌아온 지금 뭐든지 열심히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미래를 위해 노력할 예정.</p>
보완점	<p>프랑스는 1차 모집 때 없었고 추가로 모집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가기 전 오리엔테이션을 받지 못했음. 교환학생 카페에서 공지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지만 필리핀에 파견된 친구가 받았던 교수님께 메일 쓸 때의 양식이라던지 유럽의 학점이 본교에서는 어떻게 변환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받지 못했음. 직접 메일을 하지 않았다면, 학점이 모자라 지원금을 반납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뻔 했지만 초기에 미리 담당자 선생님께 메일을 보냈고, 파견대학에 직접 사정을 말해 수업 하나를 더 수강할 수 있었음. 다음 학기부터는 지원금이 없다는 사실을 들어서 매우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지만 프랑스에서는 1월에 이미 학기가 시작했고, 떠나기 전 지원금이 축소된다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 같음. 또 프랑스 파견이 우리 학교에서 처음이라 다녀온 학생들에게 파견대학에 대한 정보를 들을 기회가 부족했고, 같이 갔던 학생이 교환학생을 포기하여 혼자 수학하고 온 아쉬움이 있음.</p>